

고규홍의 '나무 생각'



지금, 느티나무 그늘이 절실한 시절

오십대의 직장인 모임에서 고향의 풍경을 그려 보자고 한 적이 있다. 잠시 머뭇거리다가...

소나무를 좋아하는 비율은 대략 50퍼센트 정도에 가깝다. 압도적이다. 고향 풍경을 대표하는 상징으로 가장 먼저 떠올리기 십상인 느티나무는 겨우 다섯 번째에 등장한다.

스며들어 있는지 짐작할 만한 수치다. 오랫동안 느티나무는 우리 삶의 광장을 이루었다. 우리 겨레의 모든 삶은 느티나무 그늘에서 이뤄졌다.

를 그렸던 예의 직장인들도 그랬다. 무슨 나무냐는 질문에 대개는 당산나무나 정자나무라고 대답했다.

예상은 했지만, 각각의 고향을 일일이 알 수 없는 상황에서 결과가 궁금한 터였다. 서른 명 남짓의 직장인 가운데에 스무 명 넘는 사람이 가장 먼저 그린 공통적인 대상이 나무였다.

그럼에도 우리네 고향 마을에서 가장 친근하게 지내는 나무는 느티나무다. 어쩌면 느티나무는 '가장 좋아하는 나무'로 구분되는 게 아닌지도 모른다.

언제나 선선한 바람이 드는 느티나무 그늘에는 모기도 개미도 들지 않아 아이를 재우기에는 안성맞춤이었다. 느티나무 그늘에서 자란 아이가 거처야 하는 성인식도 그곳에서였다.

살의 타전이 될 만큼 잘 자란 느티나무 한 그루에서 돌아나는 이따리는 무려 500만 장이나 된다. 500만 장의 잎이 모여다 흩어지기를 되풀이하며 이 땅의 모든 바람과 근심을 가리지 않고 품어안았다.

오래 전부터 우리 국민이 가장 좋아하는 나무로 꼽는 종류는 언제나 소나무였다. 산림청이 여론조사 기관을 통해 주기적으로 실시하는 설문 조사의 결과가 그렇다.

산림청에서 지정한 보호수 가운데 느티나무는 무려 5500 그루가 넘는다. 우리 국민이 가장 좋아하는 나무로 꼽는 소나무는 같은 종류에 속하는 반송, 굴송까지 통틀어 봐야 고작 1000 그루를 넘지 않는다.

나무는 당산나무가 됐고, 정자나무가 됐다. 필경 느티나무는 우리 겨레의 오래된 광장이었다.

지금 이 순간, 우리에게 간절하게 필요한 공간이지 싶다. 서로 다른 방향으로만 차단된 모두가 함께 들어서서 모든 생명이 더 평화로운 날들을 찾아야 할 때다.

삶과 교육

5·18민주화운동 교육의 세계화



이정신 광주교대 교수·전 총장

최근 아프리카의 남아공을 방문한 적이 있었다. 넬슨 만델라 대통령의 우분투 정신도 배우고 싶었고 마을교육공동체의 원형이라는 '아이는 마을 사람이 함께 기른다'는 아프리카 속담이 어떻게 실천되고 있는지도 궁금했다.

태도는 인간애의 절정이었다. 즉 과거사진상위원회를 만들어 과거의 잘못은 철저히 규명하되 사람은 용서한 점, 연임을 할 수 있는 대중적 인기에도 불구하고 단임으로 대통령을 끝마친 점이었다.

으며, 312개교 학교에서 '임을 위한 행진곡'을 함께 부르도록 하고 있다. 5·18민주화운동을 바로 알리기 위하여 타 지역의 5·18 체험학습을 지원하고 있으며, 교사 워크숍을 실시하고 오월민주강사단을 파견하고 있다.

돌을 제거해 주어야 할 것이다.

만델라 대통령의 위대한 것은 흑백간의 오랜 인종갈등을 종식시키고 백인들로부터 받은 비인간적 차별과 억압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고 흑인들로 하여금 자유를 찾고 민주화를 완성했다는 점이다.

다. 특히 민주화의 성지라는 광주에서 학생을 가르치는 대학의 한 사람으로서 그래서 남아공 방문은 내게 특별한 의미가 다가왔다. 만델라 대통령이 인권과 자유의 소중함과 평등의 가치를 세계적으로 높이 평가받게 했다는 점에서 그를 통해서 우리 지역의 아픈 민주화의 역사인 5·18민주화운동을 어떻게 교육적으로 활성화하고 국내를 넘어 세계화 시킬 것인가를 모색해 볼 수 있는 계기가 되리라는 기대감도 적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더 고민해보아야 할 문제는 예산이 부족하여 우리교육청이 중심이 되어 발간한 자료집을 정작 우리 지역 학생들조차도 학생 수대로 받지 못하고 학교당 5~6권을 배부하는 실정이라고 한다.

자료로 통한 교육도 제한적이지만 정작 우리 지역 학생들도 5·18민주화운동을 체험하기 위한 체계적인 교육 프로그램이나 콘텐츠와 교육용 스토리가 거의 없다는 점도 문제이다.

5·18 37주년 릴레이 기고

촛불로 있는 오월

오월에서 통일로!



현지 6·15공동선언실천 광주본부 상임대표

80년 5월 18일 새벽 1시 7공수가 전남대에 도착하여 "광주시민은 북에서 보낸 간첩의 선동에 따라 움직이는 폭도이며 빨갱이다"라며 아침부터 도서관에 나오는 학생들과 운동 나오는 시민들을 붙잡아 두들겨 쳤다.

없는 현실'에 가슴 아파하며 '우리의 소원은 온'을 부르기 시작했다. 우리의 소원은 통일 꿈에도 소원은 통일...

임동실현을 거쳐 지난 4개월 동안 광장을 지켰던 촛불시민들의 열원이 실현되었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이명박 박근혜 정부 지난 9년은 남북 사이의 모든 합의정신은 부정되고 화해 협력의 남북관계가 대결과 적대정책으로 파탄 났다.

5월 20일 밤 9시 40분. 광주시민들은 자신들을 "고정간첩이며 폭도라고 매도하며" 공수부대의 잔인한 행동을 한마디도 보도하지 않고 미인대회나 방송하고 있는 언론에 대한 분노로 문화방송국을 불을 질러 버렸다.

이후 김영철씨는 고문 후유증으로 뇌에 이상이 생겨 정신질환을 앓다가 1998년 8월 운명하였다. 하지만 5·18항쟁 기간 동안 가장 많이 불리었던 '우리의 소원은 통일'의 노래가 사처럼 아직까지 통일은 우리의 소원으로 남아있다.

문재인 정부 출범과 함께 광주는 5·18민주항쟁 37주년을 맞고 있다. 비상식들이 정상화되는 일련의 행보와 국정역사교과서 폐기, 5·18에 대한 왜곡 체포되었던 "김영철을 납파된 고정간첩으로 꾸며내기 위해" 잔혹한 고문을 자행하였다.

6·15 10.4선언 정신을 계승하겠다고 하는 문재인 정부는 파탄된 남북관계 개선과 한반도 평화를 위해 시급하게 남북대화를 재개해야 한다. 대화 없이 이뤄진 평화는 없다.

5월 26일 제 5차 민주수호 범시민 쉼터 대회를 마친 시민들은 자신들을 간첩과 폭도로 매도하였던 전두환에 대한 분노, "분단으로 인해 간첩으로 내몰릴 수밖에

국민의 촛불항쟁으로 사상초유 살아있는 권력, 대통령을 헌직에서 끌어내리는 탄핵을 통해 박근혜 없는 봄날을 열어내고 장미대선을 통해 마침내 정권교체를 실현하였다. 촛불혁명은 정권교체를 시작으로 적폐청산과 근본적인 사회대개혁을 통한 새로운 대한민국 건설로 완수되어야 한다.

2006년 광주에서 열린 민족공동행사에서 광주 전남의 시도민이 남북해외의 참가 동포와 상봉의 감격을 함께 누렸었다. 군사적 긴장이 높아지는 상황에서도 만남을 끊지 않았기에 긴장과 불안을 누그러뜨렸고, 평화를 지켰다.

80년 5월 저항하는 광주시민을 간첩과 폭도로 내몰고 폭력으로 진압하였던 신군부의 만행도 민족의 분단 모순을 활용하였다. 역대 기록된 세력들이 자신들의 정책에 반하고 저항하는 정치세력과 국민에게 전가의 보도처럼 색깔론과 국뽀를 탄압을 하는 악순환도 분단모순에 기생하는 것임을 역사는 증명하고 있다.

독자투고·기고

환영합니다

독자투고·기고를 기다립니다. 주변의 작은 이야기들, 생활의 경험, 불편 사항 등을 보내주세요. 원고를 보내실 때는 이름, 주소, 전화번호를 함께 적어 주십시오. 광주시 동구 금남로 238 광주일보 오피니언 담당자 전화 062-2200-654 /팩스 062-222-4918 /e메일 opinion@kwangju.co.kr

社說

일자리 넘치는 모두가 행복한 사회를

새 대통령에 바란다 4 고용 창출

통계청의 '4월 고용동향'이 며칠 전 발표됐다. 이에 따르면 취업자 수는 1년 전에 비해 다소 늘었으나 양질의 제조업 일자리는 10개월 연속 감소세가 이어졌다.

이 아니다. 일자리를 만들어 가계와 국가 경제를 일으켜 세우는 일은 절체절명의 과제다. 새 정부도 이를 잘 인식하고 있을 것이다.

전체 실업률 역시 4.2%로 2000년 4월(4.5%) 이후 17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지난 10년 동안 학제와 노동계 그리고 시민사회단체에서 요구한 내용들이 거의 모두 들어있는 것이다.

대통령의 일자리 공약집을 봐도 일자리 창출, 비정규직 감축 및 처우 개선, 노동 존중 사회화 실현 등 총 19개 정책이 담겨 있다. 지난 10년 동안 학제와 노동계 그리고 시민사회단체에서 요구한 내용들이 거의 모두 들어있는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의 취임 첫 업무 지시는 대통령을 위원장으로 하는 '일자리 위원회' 설치였다. 첫 외부 행사 참석도 인천공항공사의 일자리 만들기 관련 행사였다.

이제 곧 경제팀 내각이 발표된다. 경제 수장(총리)만 큼은 이념과 정파를 떠나 경제 체도와 일자리 창출에 가장 적합한 리더십을 지닌 인물을 발탁해야 할 것이다.

5·18 사적지 훼손되지 않도록 잘 관리해야

오늘은 광주민주항쟁 37주년을 맞는 날이다. 대한민국의 새로운 대통령이 임박해 유족들 및 광주시민과 함께 '임을 위한 행진곡'을 부르는 모습, 가슴이 벅차오른다.

와 종이컵 등 쓰레기가 쌓여 있었다.

하지만 한편으로 아쉬운 점이 있으니 5·18 사적지 관리 문제다. 특히 옛 광주교도소 주변 일대는 당국의 관리 소홀로 방치되는 등 5월 광주민주항쟁의 정신이 훼손되고 있다.

또한 이 일대는 도시경관을 유지하기 위해 지정된 일반미관지구이지만 사적비 바로 옆에는 임시건물과 벽돌 등 건축자재가 쌓여 있어 흉물스럽게 짝이 없다.

옛 광주교도소는 5·18 당시 계엄군에 체포된 시민들이 고문을 당했던 장소로 5·18 사적지 제22호로 지정돼 사적비가 설치돼 있다.

5월 현장의 숨결이 깃든 사적지는 살아 있는 역사 교육의 현장이자 민주·인권·평화도시를 지향하는 광주의 자랑이다. 따라서 5월 사적지가 사라지거나 변형되지 않도록 체계적인 관리에 나서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옛 광주교도소는 5·18 당시 계엄군에 체포된 시민들이 고문을 당했던 장소로 5·18 사적지 제22호로 지정돼 사적비가 설치돼 있다.

광주시는 후손들에게 송고한 항쟁정신을 알릴 수 있도록 5월 사적지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점검을 계속해야 한다. 시민들 역시 사적지를 아끼고 훼손하지 않는 성숙한 시민의식을 보여 주어야 할 것이다.

無等鼓

지난 2013년, 8년여 만에 전일빌딩을 찾았다. 당시 전일빌딩 7~9층에서는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이 진행한 '도시횡단 프로젝트' 공연이 있었다.

'오월의 노래'는 많은 이들에게 친숙한 '할리데이'(Holiday)의 프랑스 가수 미셸 폴나레프(Michel Polnareff)의 곡이다. 1971년 작사·작곡한 '누가 내 할머니를 죽였나'(Qui a tue grand maman)가 원곡으로, 자신이 정성껏 마치고 운전기사 아저씨들과 가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오던 주차장, 기사를 쓰기 위해 수없이 오르락내리락했던 조

오월의 노래

다시 외부자 시각으로 광주를 탐색한 서울 예술가들은 '곧 사라져 버릴' 전일빌딩에 주목했다. 48년 동안 5·18 등 광주의 역사를 지켜본 건물과 사람에 얽힌 이야기가 주체였다.

이 노래는 많은 아티스트들에게 영감을 준 사적지인 작품들을 만났다. 당시 외부자 시각으로 광주를 탐색한 서울 예술가들은 '곧 사라져 버릴' 전일빌딩에 주목했다.

6·15 10.4선언 정신을 계승하겠다고 하는 문재인 정부는 파탄된 남북관계 개선과 한반도 평화를 위해 시급하게 남북대화를 재개해야 한다. 대화 없이 이뤄진 평화는 없다.

이날 관객들은 낮게 깔리는 피아노 연주를 들으며 모두 눈이 밝게졌다. 우리를 무장해제시킨 곡은 '꽃잎처럼 금남로'로 시작하는 '오월의 노래'였다. 거리에서 부르고 들던, 투쟁감 넘치던 노래 대신 애조 띤 곡조에 다들 멍멍해졌다.

80년 5월 저항하는 광주시민을 간첩과 폭도로 내몰고 폭력으로 진압하였던 신군부의 만행도 민족의 분단 모순을 활용하였다. 역대 기록된 세력들이 자신들의 정책에 반하고 저항하는 정치세력과 국민에게 전가의 보도처럼 색깔론과 국뽀를 탄압을 하는 악순환도 분단모순에 기생하는 것임을 역사는 증명하고 있다.

5·18 37주기인 오늘, 우리는 '임을 위한 행진곡'을 9년 만에 다시 제창할 수 있게 됐다. 앞으로 다양한 '오월 노래'들을 함께 부르며 '그날'을 기억할 수 있으면 좋겠다.

光州日報 The Kwangju Ilbo
사장·발행·편집·인쇄인 김우석 주필 李洪載 편집국장 程厚植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71(일간) 우편 61482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38
대표전화 222-8111·220-0551(지사·지국(구독신청·배달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안내 경제부 220-0663 (대표 FAX 222-4918) (FAX 222-4938)
경영지원국 220-0515 문화사업국 220-0541 (FAX 222-8005) (FAX 222-0195)
기획관리국 227-9600 독자서비스국 220-0551
편집부 220-0649 문화부 220-0661 (FAX 222-9500) (FAX 222-0195)
정치부 220-0632 문화미디어부 220-0664 (FAX 222-9500)
사회부 220-0642 체육부 220-0697
사 회 부 220-0652 사 진 부 220-0693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